

원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S. 출몬(Tsolmon)**

국문요약

몽골의 관점에서 볼 때 탐라는 대륙문화가 고려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지는 가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해상루트에서 중요한 항구였다. 13-14세기에 몽골 황금씨족의 귀족들은 탐라를 비롯한 고려의 여러 섬으로 유배를 보내졌는데, 몽골의 역사서인 단다(Dandaa)의 몽역본 『원사』에서는 탐라를 탐라국(耽羅國, Tang Lu ulus)이라 하여 별도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섬보다 좀 더 독립적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칭기스칸 시대의 유배형은 교훈을 주어 깨닫게 하려는 경향이 우세했던 반면, 원대에 들어서는 상당히 엄격한 처벌 가운데 하나로 변하였다. 정변이나 제위계승 같은 민감한 순간에 음모를 꾸민 자들을 엄격하게 징벌하고 처형하였으며, 그 다음 형벌은 장소를 정하여 유배했던 듯하다. 유배를 당한 수 많은 관리, 황금씨족의 귀족, 그 중에 황후도 적잖이 있었는데, 이는 많은 왕자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즉위시키려 경쟁적으로 계락을 주도하거나 관여했던 것과

* 이 논문은 제주학회,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2017 제주 국제학술대회,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 유배섬의 역사와 문화교류 (2017.1.11~12., 제주)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한 것으로, 본래 몽골어로 쓰인 논문을 양혜숙(몽골 국립 울란바야타르대학교)이 번역하였다.

** 몽골 국립 울란바야타르대학교 교수

관련이 있다.

주제어: 몽골, 원(元), 고려, 탐라, 유배

I. 서론

1990년 몽골과 한국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25여 년간 몽골과 한국학자들의 공동 연구 활동과 그 범위도 한층 심화, 확대되고 있다.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원과 고려의 관계이다. 이 시대의 양국 교류의 문제 중 서간문, 혼인사는 상당히 연구되었다. 그러나 13-14세기에 몽골 황금씨족의 귀족들을 유배 보냈던 고려의 대청도(大靑島), 인물도(人物島), 고란도(高鸞島), 여음도(與音島), 잉분도(荳盆島), 백령도(白翎島), 오야도(烏也島), 영흥도(靈興島), 조월도(祖月島), 오안도(烏安島), 탐라(耽羅) 등의 섬들 중에서 단지 탐라만 몽골·한국, 몽골·일본 교류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논저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다른 섬들로 유배간 자들에 대해서는 몽골의 역사논저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13-14세기 몽골·한국, 몽골·일본의 교류를 연구한 B.하과(Lkhagva), T.멍흐체첵(Munkhtsetseg) 박사 등은 논저에서 제주도에 대해 해상 교류상 중요 항구, 군사적 전략, 몽골군대의 중요 기지였음을 간접적으로 기술하였다. 즉, 대륙문화가 주로 고려를 거쳐 일본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지리적으로 육지에서 일본으로 가는 가교, 출구였다고 보았다.

근래 출간된 일부 서적 중, 명대 권형(權衡)의 『경신외사(庚申外史)』, 중국의 속다르잡(蘇格德日扎布)이 역주한 『원사·후비전(元史·后妃傳)』, 몽골의 D.이테르(Ider)의 『대원의 황후들』 등이 출간되었으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배에 대한 문제가 약간이나마 다루어졌는데, 이는 동 문제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기할 논저는 몽골어로도 번역, 출간된 한국의 박원길 박사와의 공저 『한국·몽골 교류사 연구』이다. 박원길은 이 연구서에서 『고려사(高麗史)』의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의 섬들에 장기간 또는 단기간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들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고, 이를 도표로 제시한 바, 이는 몽골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있다. 상기의 기사들 중 일부는 『원사(元史)』의 기사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동 문제를 조금이나마 규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몽골의 유배형 고찰에 대한 첫 시도이며 자료들의 불일치성, 동명의 인물들이 많아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바, 여러 학자들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II. 본론

2016년에 ‘몽골사료유산’ 총서 제1호로 단다(Dandaa)라고도 알려진 템치도르지(Demchigdorj)가 번역한 『원사』가 사진본으로 출간된 바, 이는 몽골제국사, 몽골·고려의 관계 문제를 심화시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더해주고 있다. 1917년부터 템치도르지는 『원사』를 번역하기 시작하여 중간에 1920-1923년 몽골지역에 전란이 발생했던 시기에는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며, 1928년 210권 전권을 완역하였다. 동 번역본은 몽골국립공공도서관에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어 연구자들 이외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단다의 몽역본 『원사』 중 권208, 외이열전(外夷列傳)95에 고려(高麗, Qauli)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술에 이어 탐라국(耽羅國, Tang Lu ulus)이라 하여 별도로 지금의 제주에 대하여 소주제로 간략히 기록한 점이 주목을 끈다. 고려에 많은 섬이 있어도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으면서 제주를 별도의 목차 아래 따로 기술하고, 본문에

서도 탐라를 나라(ulus)로 표기한 바, 이는 다른 섬보다 좀 더 독립적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탐라는 고려의 관할국이다 [고려왕이 상언하여] 바로 조정, 즉 원(元)에 예속시키려고 하니 아무쪼록 예전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이는 조그만 일이다, 되돌려 고려에 환속시키면 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다시 고려에 종속되었다” 라고 한 기사로 볼 때, 제주를 비교적 나중에 고려에 합병시킨 듯 여겨진다.

일본학자인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는 “고려인들이 30여 년간의 투쟁을 마치고 영토가 원에 예속된 그 때부터 제주도는 몽골인들과 관련되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다. 삼별초의 난이 발발한 것은 일본인들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다. 1276년에는 타라치라는 원의 다로가치가 말 160필을 가져왔다. 1294년 코빌라이 카간이 사망한 후 고려의 왕이 터머르 카간에게 제주를 환속시켜 달라는 청원을 했다”라고 하며 이 섬의 독립성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코빌라이 카간이 탐라를 중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원사』 본문에 “남송과 일본의 요충지임으로 해서 주목하였다”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원대 몽골 황금씨족 출신 인물들의 고려 유배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몽골에 유배형이 존재했었는지의 여부, 또는 정주국가를 정복하면서 그 영향으로 이러한 형벌이 생겼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대몽골국 및 몽골제국의 역사와 관련 있는 몽골의 사료에는 대몽골국 시대의 유배에 대한 기사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칭기스칸의 시대에 유배형으로 다스렸다는 유일한 기사는 『몽골 비사』와 페르시아어 사료인 라시드 앗 딘의 『집사』에 기록되어 있다. 라시드 앗 딘의 『집사』를 페르시아어에서 몽골어로 번역한 번역본은 아직 없지만, 1946년, 1952년, 1960년 L.A.헤타구로브(Khetagurov), O.I.스미르노브(Smirnov), Yu.P.베르홉스키(Verkhovskiy), A.K.아렌드스(Arends) 등이 페르시아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한 본 에서 Ts.수렝호를로가 번역한 『집사』의 몽골어 번역본, 하버드대학교의 학자 W.M.썙크스톤(Thackston) 이 페르시아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1999년도

영역본 에서 번역한 G.아킴(Akim)의 몽골어 번역본 등 2종의 몽역본이 있다.

필자는 서술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 있는 기사를 상기의 몽역본 2종에서 살펴 보았으나 단 1건의 기사만 찾을 수 있었다. 상기의 몽역본 2종의 기사를 비교해 보겠다. 노역본을 저본으로 한 Ts.수렝호를로의 몽역본에는: 칭기스 카간이 “만약 나의 친족들 중에서 누구라도 정해진 법령을 어긴다면 말로써 충고하라, 만약 이를 다시 어긴다면 성훈에 따라 징벌하라, 허나 세 번째 어긴다면 머나먼 곳인 발진-쿨조르(Балжин-Кульжур)(хөлчүр)에 보내라. 그 쪽으로 갔다가 돌아 올 때는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뉘우치지 않는다면 칼을 씌워 어둠에 가두어라, 그가 만약 그곳에서 나와 행실을 바르게 하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가깝거나 먼 모든 친인척들은 모여서, 사이좋게 상의하여 어찌할지를 결정하라” 라고 하였다. 영역본에서 몽역한 G.아킴의 번역본에는 “만약 나의 친족들 중에서 그 누구라도 이미 정해진 법령을 어긴다면 말로써 충고하라, 만약 이를 다시 어긴다면 엄중하게 질책하라, 허나 세 번째 어긴다면 머나먼 더르벌진-쿨춘(Дөрвөлжин Хулчун)이라는 곳에 보내라. 그 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각성하겠지. 만약 그가 뉘우치지 않는다면 [칼을 씌워] 검은 게르에 가두어라. 그가 만약 그곳에서 나와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가깝거나 먼 모든 친인척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상의하여 그를 어찌할지를 결정하라”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대법령을 어긴 황금씨족 출신 인물의 단계적 징계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3번째 어기면 유배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부 번역에는 ‘유배’라는 단어가 아니라 법을 어긴 죄인에 대해 지명을 지칭하면서 보내라고 한 바, 이는 내용상 ‘유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번역 2종은 내용상 동일하지만 특기할 사항은 유배지 명칭에 차이가 있다. 노역본에서 몽역한 Ts.수렝호를로의 번역본에는 유배지 명칭을 ‘발진-쿨조르(Балжин- Ку

льжур)’라고 한 반면, 영역본에서 몽역한 G.아킴의 번역본에는 ‘더르벌진-콜춘(Дөрвөлжин-Хулчун)’이라고 하였다.

『몽골비사』에 기록된 산천지명을 연구하였거나 몽골지역의 지명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더르벌진 홀춘’이라는 이름을 아직 마주치지 않았다. 반면, ‘발진-콜조르’라는 곳은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와 관련되는 듯하다. ‘발진-콜조르’라는 곳에 대해 역사적 사건으로 추정해 볼 때, ‘발조나 호수 (Балжун нуур 「 Baljuna nagur)’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 역사적 장소는 칭기스칸과 관련하여 몇 차례 『몽골비사』에 언급되었다. 예를 들면, 일례로, 발조나 호수에 있을 때 사르탁태 아산이라는 상인이 와서 거래하였다. 또한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칭기스칸이 칼잔 엘레에트 전투에서 패하여 퇴각할 때 군사 대부분이 그와 떨어져 갔다. 칭기스칸은 발조나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몇 개의 조그만 샘이 있었지만, 사람이나 가축에게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진흙에서 물을 짜내어 마셨다. 당시 칭기스칸과 함께 있던 이들은 수가 적었는데, 그들을 발조나에 같이 있던 사람들(Балжунагийнхан)라고 부르는데, 이는 칸을 배신하지 않고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건들과 연관해 기술되어 있다. 발조나 호수물을 마시며 맹세했던 칭기스칸의 충직한 의형제들은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며 대국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누릴 특권은 다른 이들보다 상위에 있었다. 그러나 ‘콜조르(Кульжур)’라는 단어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풀이하지 못 하고 있다.

‘대법령’의 조항을 어긴 후대의 황금씨족의 구성원에게 경고하면서, 각성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일부러 바로 이 역사적 장소를 선정해 보냈을 수도 있다. 또한, 『몽골비사』에는 칭기스칸이 친위군(keshigten)을 확대 조직 할 때 “친위의 임무가 있는 자가 당직을 태만히 한다면 그 당직을 태만히 한 친위병을 3대의 매를 때려 교도하도록 하라. 그 친위병이 또 다시 당직을 태만히 한다면 7대의 매를 때려 교도하도록 하라. 또 같은 자가 몸에 병도 없이, 당직 노안들에게 말도 없이, 다시 그 친위병이 3번째 당직을 태만히 한다면

37대의 매를 때려 교도하도록 하고, 우리와 하기 어려운 이런 자를 눈에 띄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성지를 내린 것에 대하여, 그리고, 칭기스칸이 “나와 상의 없이 나의 친위병을 질책하지 말라”는 성지를 내린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상기의 기사들은 대몽골국 시대에 유배형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코빌라이 카간이 원나라를 세운 이후 새 카간을 선택하려거나 역모시도나 반란에 연루된 황금씨족 출신의 귀족, 왕자, 황후들이 지정된 곳으로 유배당했다는 기사가 『원사』에 적잖이 기록되어 있다. 코빌라이 카간은 몽골 정치의 중심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중국에 자리잡으면서 주요 정사를 대도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코빌라이 카간부터 토곤테무르 카간에 이르는 총 108년 동안 몽골 카간들이 대도에서 정사를 돌보면서 반역이나 무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형을 받았다. 여기서는 사형 및 여타 형벌에 대하여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유배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원대에 주로 카간위 계승투쟁으로 인하여 사형이나 유배형이 내려졌으며, 주된 유배지는 중국의 운남(雲南), 광서(廣西), 동안주(東安州), 고려의 대청도, 인물도, 고난도, 여음도, 잉분도, 백령도, 오야도, 영흥도, 조월도, 오안도, 탐라 등의 섬들이었다. 어떠한 죄인을 중국에, 어떤 경우에 고려의 섬에 유배시켰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다.

원대 제위 계승 투쟁이 격화되어 카간의 생명을 해칠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에 유배지는 험난하고 돌아올 수 없거나, 심지어 때로는 뒤따라 사람을 보내어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코빌라이 카간의 시대에는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릭 버케와 나얀을 지지하면서 맞섰던 인물 상당 수를 고려로 유배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코빌라이 카간에 반기를 들며 요동 변방에서 일어났던 나얀, 카다안 등의 반란을 바얀 장군이 진압하였다. 그리고, 카이도의 군대가 서쪽에서 공격하자 코빌라이 카간, 감마라 왕자, 바얀이 카라코룸에서 대군을 지휘하면서 그에 대응하였다. 또한, 고려 충렬왕의 군대를 뒤이어 파

건하였다. 이들 군대는 반란을 진압하고 포로들을 사방으로 분산시켰는데 그 중 고려의 참전자들에게도 배당되어 귀환하면서 대동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박원길 박사가 작성한 도표1에서 보더라도 상기의 반란들에 참여한 황금씨족의 일원들도 역시 있다.

『원사』에 기록된 유배형에 대한 기사를 발표문 한편에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고려사』에 기록된 일부 인물에 대한 박원길 박사의 분석을 여타 사료의 기사를 더해 밝히고자 한다. 박원길 박사가 작성한 표1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아야치(愛牙赤)는 『원사』에는 코빌라이 카간의 여섯째 아들 아야치 대왕 이라 했으며, 모친은 성명 미상이다. 반면, 『집사』에는 여덟째 아들이고, 그의 모친은 후신부족의 오로갈 노안의 딸인 쿠신진이라고 하였다. 아야치는 지원 24년(1287년) 반란을 일으킨 시도르를 진압하여 승전하였다. 지원 28년(1290년) 카간이 그에게 금인(金印)을 하사하였다. 아야치에게 세사(歲賜)를 내려준 바, 은 50정, 중통교초(中統交鈔[折鈔]) 1000정, 지원보초(至元寶鈔[折鈔]) 1656정이었다. 매년 세금 계초(計鈔)는 544정이었다. 1312년 보얀트 카간은 그에게 소무로 광택현(邵武路 光澤縣)의 13640호를 나누어 주었다.

이 표1의 두 번째에 언급된 시리기(室刺只, 昔里吉; ?-1280?)는 『집사』에 따르면 명케 카간의 세째 아들 시레기이며, 바야오진 후비의 소생이다. 코빌라이와 아릭 버케 사이의 제위투쟁에서 코빌라이가 승리한 후 1268년 시리기는 하평왕(河平王)에 봉해졌다. 시리기는 1267년부터 북안왕(北安王) 노모간(那木罕)과 영왕(寧王) 커케추(闊闊赤, ?-1313)가 지휘하는 군대에 소속되었으며, 카이도 칸의 군대에 대비해 알타이 너머에 주둔하였다. 1276년 코빌라이 카간의 대군이 남송과 전투할 때 시리기는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을 붙잡아 카이도 칸에게 보냈다. 그러나, 카이도 칸은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포로들 가운데 안톤(安童)만 수용하고, 커케추와 노모간을 명케 테무르 칸에게 보냈다. 시리기는 1276-1277년 옹기라드씨족의 조르가이다이 노안과 함께 카라코룸과 응창부를 점령하였으며, 응창부와 토을강에서 바얀 노안과 토토카 노안의 대군에 패하여 알타이산맥 너

머로 도망쳤다. 1277-1280년까지 서로 제위 계승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멩케 카간의 손자인 사르반은 요모코르, 시리기 등을 붙잡아 코빌라이 카간에게 항복시켰다. 『집사』에 따르면, 코빌라이 카간이 시리기를 수용했고, 시리기를 바닷가 더운 지방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는 그 곳에서 죽었다.

이 표1의 세 번째에 언급되어 있는 『고려사』에 기록된 커케데이(闊闊歹)는 대왕이라는 칭호로 미루어 황금씨족의 직계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가 유배되었던 시기와 상황을 볼 때 나얀의 반란에 가담했었던, 칭기스칸의 동생인 조치 카사르, 테무게 오토치긴, 카치온 등 동방왕가의 후예로 보인다. 유배섬은 대청도라고 한다.

커케데이와 이름이 유사하면서 역시 고려에 유배되었던 커케추의 경우, 그와 비교하면 생존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수 없어 유배인의 수를 한 명 추가한다. 『집사』에 따르면, 코빌라이 카간의 아홉째 아들인 영왕(寧王) 커케추(闊闊出)는 지원 26년, 즉 1289년 카이도 칸의 대군과 전투를 벌여 영원왕(寧遠王)에 봉해지고, 거북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도금된 은 인장(金鍍銀印龜紐)을 받았으며, 몽골지역에서도 군대를 통솔하며 주둔시켰다. 1310년 형벌을 받아 고려로 유배되었다. 그는 인종(仁宗) 아요르바르바드 보얀트 카간 때 유배에서 풀려나 대도로 귀환하다가 귀로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향후 이 인물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길의 표1 중 15번째 언급되었으며, 원의 영종(英宗) 소드발 시대인 1324년1월부터 1329년 3월까지 대청도에 유배되었던 패자 태자(孛剌太子) 즉 보로(孛羅)가 주목을 끈다.

1311년 인종 아요르바르바드는 대원의 카간으로 추대되었으며 배주(拜住)를 중서(中書右丞相)에 임명하였다. 바이조 노얀(1298-1323)은 잘라이르씨 모칼리 노얀의 가계인 안톤(安童) 노얀의 손자이며, 원나라 인종, 영종 시대에 활동했던 몽골 조정의 충직한 승상이었다. 1320년 영종 소드발의 즉위 후 바이조가 계속 기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후의 활동으로 볼 때 활동했던 듯하다. 1323년 9월 4일 영종

소드발 계겐 카간이 바이조 승상과 함께 수도인 대도에서 나와서 상도로 오는 길에 남파(南坡)라는 곳에 머물 때, 텍쉬, 칭터머르 등이 군사를 끌고 와 20세이던 소드발 카간과 바이조 재상을 살해했다고 한다. 그런데, 도표에 언급된 패자가 1324년 1월부터 대청도에 유배되어 5년을 지냈다는 기사는 흥미로우며, 향후 상세히 살펴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이 표 1의 16번째에 언급된 토곤 테무르 카간에 대해 살펴보자. 1332년 톡 테무르 카간이 상도에서 봉어하였다. 중서우승상 엘 테무르가 라드나다르의 동생인 엘 텍스를 옹립하고자 상소를 올렸다. 엘 텍스는 보다쉬르(보디쉬르) 카톤의 친아들이다. 보다쉬르 카톤이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 승상 엘 테무르의 상서를 따르지 않고 말하기를, “선대 카간의 유언에는 내가 승천한 후에나 큰 형 명종(明宗) 코살라 카간의 아들을 즉위시키라”고 했다. 당시 명종 코살라의 장자인 토곤 테무르는 직위, 직권을 박탈당한 채, 계림(桂林)에 유배 중이었다. 둘째 아들인 부왕(鄯王) 이린친발(懿璘質班)은 겨우 7세였다. 그러나 보다쉬리 카톤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부왕 이린친발을 옹립하여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토곤 테무르 카간은 성인이 되자 부친인 명종 코살라 카간이 독살당했음을 알고 매우 안타까워하며 애도하였다. 그리하여 1340년 토곤 테무르 카간은 조서를 내려 부친인 코살라 카간을 독살한 주범인 문종(文宗) 톡 테무르 카간의 태묘(太廟)를 없애고, 나아가 보다쉬리 카톤을 동안주(東安州)로 유배 보냈으며, 얼마 되지 않아 보다쉬리 카톤과 황자인 엘 텍스를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원말명초에 권형(權衡)이 편찬한 『경신외사(庚申外史)』에 따르면 1330년 톡 터머르 카간의 성지에 따라 토곤 테무르 카간을 고려의 대청도로 유배 보냈으며, 외부인들과의 면회를 금지하였다. 1332년 광서성 계림(廣西省 桂林)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III. 결론

칭기스칸 시대의 유배형은 교훈을 주어 깨닫게 하려는 경향이 우세했던 반면, 원대에 들어서는 상당히 엄격한 처벌 가운데 하나로 변화였다. 정변이나 제위계승 같은 민감한 순간에 음모를 꾸민 자들을 엄격하게 징벌하고 처형하였으며, 그 다음 형벌은 장소를 정하여 유배했던 듯하다. 유배는 일정 기간이 있으며, 때로는 종신에 처했다. 카간의 황후, 제왕들 가운데 적잖은 수가 이 유배형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의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심각했음을 나타낸다. 유배를 당한 수 많은 관리, 황금씨족의 귀족, 그 중에 황후도 적잖이 있었는데, 이는 많은 왕자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즉위시키려 경쟁적으로 계략을 주도하거나 관여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몽골역사에서 불분명한 여러 사안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 [明] 權衡, 2005, 『庚申外史』, 발조르 목판본에서 고전몽골문으로 전사, Ch.알
탄숨베르(阿騰生卜尔), 보얀트 譯註, 民族出版社, 北京.
- B.하과, 1996, 『한국, 몽골-한국의 전통으로부터』, 서울, 두솔출판사.
- D.이데르, 2016, 『대원의 황후들』, 울란바야타르.
- Kh.페를레, 2012, 「“몽골비사”의 산천지명에 대한 예비 정보(1948)」, 『논총』
제3권, 울란바야타르.
- Kh.페를레, 2012, 「몽골 산천지명 일고(1968)」, 『논총』 제2권, 울란바야타르.
- S.바담하탄, 1997, 『칭기스칸: 나 여기에 잠들다』, 울란바야타르.
- Rashiduddin Fazlullah. 1999, JAMI'U'T- TAWARIKH Compendium of
Chronicles. A History of the Mongols. 3 Vol., Translated and
Annotated by W.M.Thackston. Harvard University.
- T.명흐체첵, 2006, 『13-14세기 몽골과 일본의 교류』, 울란바야타르.
- 岡田 英弘, 2010,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東京, 藤原書店, T.명흐체첵의
일본어 번역을 이용했음.
- 라시드 앳 딘 파즈롤라흐, 2013(제1권), 2015(제2권), 『집사-몽골인들의 역
사』 2권, 하타긴씨족G.아킴, 영역본에서 몽역, 울란바야타르.
- 라시드 앳 딘, 2002, 『집사』 3권, Ts.수렝호를로, 노역본에서 몽역, 울란바야
타르.
- 박원길, 2014, 「한국·몽골 문화교류사 연구」 - 박원길, S.출몬, 『한국·몽골 교
류사 연구』 제1부에 수록, 울란바야타르.
- 蘇格德日扎布 譯註, 2011, 『元史·后妃傳』,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赤峰(고전몽
골문).
- 『몽골비사』 2005, 정선본, Sh.비라 외, 울란바야타르.
- 『원사』 전 18책, 2016, 몽골사료유산 총서 제1호, 단다 창상으로 불리는 템치
도르지 몽역, G.아킴, M.바야르사이한 책임출간, 울란바야타르(고전
몽골문 사진본).

Юань улсаас Солонгост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Монголын язгууртнууд*

С. Ц о л м о н **

1990 онд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оёр улс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хорин тав гаруй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рдэмтд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 улам бүр гүнзгийрч, өргөжсөөр байна.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нэг чухал асуудлын нэг нь Юань Гуули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юм. Өгүүлэн буй үеийн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асуудлаас захидал харилцааны бичиг, худ ургийн асуудал нэлээд судлагджээ. Харин XIII–XIV зууны үед монголын алтан ургийн язгууртнуудыг цөлж байсан Гуулин улсын Дайчөн–до, Иньмүл–до, Корань–до, Йёым–до, Инбүн–до, Пайгрён–до, Оя–до, Йөнхын–до, Жовөл–до, Оань–до, Тамна зэрэг арлуудаас зөвхөн Тамна л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Японы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алсан эрдэмтдийн бүтээлд өөр асуудлуудаар дам хөндөгдснийг эс дурдвал монголын түүх бичлэгт энэ асуудал судлагдаагүй байна.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Японы харилцааг судалсан доктор Б.Лхагва, доктор Т.Мөнхцэцэг нарын бүтээлд Жэжү арал нь далайн зам харилцааны чухал боомт, цэргийн стратег

* The Society for Jeju Studies, The 2017 JEJU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for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with a relegation culture of the islands, “Beyond the cut-off to communication” – History and Culture

** Улаанбаатарын их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улс

и, монгол цэргүүдийн чухал түшиц газар байсныг дам дурдаад газар зүйн хувьд эх газраас Япон руу гарах гүүр, гарц нь Жэжү арал хэмээн үзэж эх газрын соёл гол төлөв Гуулин улсаар дамжин Японд хүрч байсан гэж үзжээ.

Сүүлийн үед хэвлэгдэн гарсан зарим зохиолын дотор тухайлбал Мин улсын эхэн үед Чиүван Хэн гэгчийн зохиосон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ы түүх”, БНХАУ-ын судлаач Сугдаржавын орчуулж тайлбарласан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дахь хатадхийгээд сулхатдын шашдир, МУ-д Д.Идэрийн “Их Юань улсын хатад” зэрэг ном хэвлэгдэн гарсан ба бидний со нирхон буй цөллөгийн тухай асуудал бага боловч хөндөгдсөн нь уг асуудлыг тодруулахад чухал мэдээ өгч байгаагаараа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Онцлон дурдах нэг зохиол бол БНСУ-ын эрдэмтэн, доктор Пак Вонгилийн монгол хэлээр орчуулагдан гарса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лах нь” зохиол бөгөөд түүнд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рын мэдээг шүүн үзэж Гуулин улсын арлуудад урт боло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гаар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монголын ноёд язгууртны тухай тусгайлан авч үзэж түүнийгээ хүснэгээр харуулсан нь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чухал үнэ цэнэтэй шинэ мэдээ байна. Дээр дурдсан мэдээнүүдийн зарим нь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болон бусад сурвалжийн мэдээтэй уялдаж байгаа нь уг асуудлыг бага боловч тодруулах боломж олгож байгаа юм.

Миний энэхүү илтгэл монголын цөлөх ялын тухайд хийсэн анхны оролдлого бөгөөд сурвалж бичгүүдийн зөрүүтэй байдал, адил нэртэй хүмүүс олон байснаас үүдэн алдаж эндсэн зүйл байхыг үг үйсгэхгүй бөгөөд засч залруулж дэмжлэг үзүүлнэ гэдэгт итгэж байна.

2016 онд “Монгол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өв” цувралын тэргүүн дугаарт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ын Дандаа хэмээх Дэмчигдоржийн орчуулгыг зургаар хэвлэн гаргасан нь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түүх, Монгол-Гуули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асуудлыг гүнзгийрүүлэн үзэх бо

ломжийг нэмэгдүүлэв.

1917 оноос Дэмчигдорж Юань улсын судрыг орчуулж эхлээд дундаа 1920–1923 онд монгол орон дайн самуунтай байсан үед түр завсарлаад дахин үргэлжлүүлж 1928 онд 210 ботийг бүрэн орчуулж дуусгасан билээ. Уг орчуулга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нийтийн номын санд гар бичмэлээр байсан нь эрдэмтэн судлаачдаас өөр хүн ашиглах боломж нь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байсан юм.

Дандаагийн монгол орчуулгын Юань улсын судрын 208–р дэвтэр, Гадаад аймгийн шашдирын ерэн тавд Гаоли улсын түүхийг бичжээ. Тийнхүү бичихдээ дотор нь дэд сэдэв болгон залгуулан Тан лу улс хэмээн тусад нь өнөөгийн Жэжүгий тухай товч бичсэн нь сонирхол татаж байна. Гаоли улсад олон арал байхад бичээгүй атлаа Жэжүг тухайлсан гарчгийн дор тусад нь бичсэн, текстийн дотор Тан лу–г улс хэмээн тэмдэглэсэн нь бусад арлаас арай бие даасан байдалтай байсныг зааж байсан болов уу? хэмээн санана. Үүнд: Тан лу нь Гуулины хамаарсан улс болай гээд шууд улс гэрдо (Юаньд) хавсруулсан тулд гуйх нь хуучин хэвээр болгох болов уу? хэмээсэнд хаан өгүүлрүүн энэ нь бага хэрэг эргүүлэн Гаоли–дур харьяатуулбаас болмой хэмээв. Үүнээс даруй басхүү Гаоли–дур хавсруулжээ гэснээс үзэхэд Жэжүг харьцангуй сүүлд Гаоли улсад нэгтгэсэн мэт санагдна.

Японы эрдэмтэн Окада Хидэхиро: “Корёчуудын 30 гаран жилийн тэмцэл дуусгавар болж нутаг дэвсгэр нь Юаны харьяат болсон тэр үеэс Жэжү арал нь монголчуудтай холбогдож няг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болсон. Самбёлчогийн бослого дэгдсэн нь Япончуудын хувьд таатай хэрэг болов. 1276 онд Тарачи гэдэг Юаны даргач 160 морь авчирч бэлчээр болгожээ. 1294 онд Хубилай хааныг нас барсны дараа Корё ван Төмөр хаанаас Жэжүг эргүүлэн өгөх хүсэлт гаргасан” хэмээн тус арлын талаар чухал мэдээллийг өгч байна.

Хубилай хаан Тан лу-г чухалчилж байсны учрыг өмнө Юань улсын судрын текстийн дотор “Өмнө Сүн улс, Жи бэний их замын чухал тул мөнхүү санаа агуулжээ” хэмээснээс харж болно.

Юань улсын үед монголын алтан ургийн язгууртан хүмүүсийг Гуулин улс руу цөлж байсан тухай өгүүлэхийн өмнө Монголд цөлөх ял байсан эсэх эсвэл суурин орныг эзлээд түүний нөлөөгөөр ийм ял буй болсон уу? гэдгийг нягталж үзэх хэрэгтэй юм.

Их Монгол улс болон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бичгүүдэд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еийн цөллөгийн тухай мэдээ маш бага буюу бараг үгүй гэж хэлж болно.

Чингис хааны үед цөлөх ялаар шийтгэж байсан тухай ганц нэгэн мэдээ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болон перс хэлний түүхэн сурвалж Рашид-ад-Диний “Судрын чуулган” –д тэмдэглэгджээ.

Рашид-ад-Диний “Судрын чуулган”-ыг перс хэлнээс монгол хэлнээ орчуулсан орчуулга энэ хир гараагүй байгаа ба 1946, 1952, 1960 онуудад Л. А. Хетагуров, О. И. Смирнов, Ю. П. Верховский, А. К. Арендс нарын перс хэлнээс орос хэлнээ хөрвүүлсэн орчуулгаас Ц.Сүрэнхорлоогийн орчуулса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ы монгол орчуулга, нөгөө нь Харвард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эрдэмтэн В.Такстон перс хэлнээс англи хэлэнд орчуулсан 1999 оны англи орчуулгаас Г.Акимын орчуулсан 2монгол орчуулга байгаа билээ.

Бид өөрсдийн өгүүлэн буй сэдэвт холбогдох мэдээг хоёр орчуулгаас нь хайж үзэхэд ганц мэдээ л олдсон юм. Дээрх хоёр орчуулгын мэдээг харьцуулж үзье.

Ц.Сүрэнхорлоогийн орос орчуулгыг баримтлан орчуулсан орчуулгад: Чингис хаан “Хэрэв миний ургийнхнаас хэн нэгэн нь тогтоосон яса хуулиа зөрчвөл үгээр сургамжилдаг, хэрэв түүнийг дахин зөрчвөл бэлэгдэлийн дагуу цээрлүүлдэг, харин гуравдахь удаагаа зөрчвөл алс холын нутаг Балжин-Кульжурт (хөлчүр-т) явуулаг.

Тэр тийшээ яваад эргэж ирэхдээ ухаарах болно. Хэрэв тэр засраагүй байвал дөнгөлөөд харанхуйд хориг, тэр хэрэв тэндээс гарахдаа төрх төлөв нь засарсан, ухаалаг болсон байвал тэр чинээ сайн хэрэг, чингээгүй байвал түүний ойрын ба холын бүх төрлүүд нь хуран цуглаж, эелдэн зөвлөлдөж яахаа шийдэг” гэжээ. Англихэлнээс монголхэлнээс орчуулсан Г.Акимын орчуулгад “Хэрэв миний ургийн хнаас хэн нэгэн нь нэгэнт тогтоосон Их засаг хуулийг зөрчвөл амаар сургамжлатугай, хэрэв түүнийг дахин зөрчвөл чанга донгодт угай, харин гурав дахиа зөрчвөл алс холын Дөрвөлжин Хулчунд нутаг заатугай. Тэр тийшээ яваад эргэж ирэхдээ ухааран гэмших болмуй заа. Хэрэв тэр засраагүй байвал [дөнгөлөөд] хар гэрт хорьтугай. Тэр хэрэв тэндээс гарахдаа төрх төлөв нь засарсан, ухаалаг болсон байвал тэр чинээ сайн хэрэг, чингээгүй байвал түүний ойр, холын бүх төрлүүд нь хуран цуглаж, эетэлдэн зөвлөлдөж түүнийг яахыг шийдэгтүн” гэжээ.

Энд нэг гол анхаарах зүйл бол Их засаг хуулийг зөрчсөн алтан ургийн хүнийг үе үе шаттайгаар шийтгэх тухай өгүүлээд гуравдах удаагаа зөрчвөл цөлөх тухай өгүүлжээ. Зарим орчуулгад цөлөх гэдэг үгээр бус хууль зөрчсөн гэмтнийг газар нутгийн нэр зааж явуул гэсэн байгаа нь агуулгаараа цөлөх гэдэг утга нь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гаа гэж үзэж болно. Дээрх 2 орчуулга агуулгын хувьд адил боловч нэг онцлон өгүүлэх зүйл нь цөллөгт явуулах газрын нэр зөрүүтэй байгаа юм. Орос хэлнээс орчуулсан Ц.Сүрэнхорлоо гуайн орчуулгад цөллөгт явуулдаг газрын нэрийг Балжин—Кульжур гэсэн бол англи хэлнээс орчуулсан Г.Аким гуайн орчуулгад Дөрвөлжин—Хулчун гэжээ.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дурдагддаг газар усны нэрийг судалсан болон монгол орны газрын нэрийг судалсан эрдэмтдийн судалгаанд Дөрвөлжин Хулчун гэсэн нэр одоогоор хараахан тохиолдоогүй байна. Харин Балжин—Кульжур гэдэг газар бол нягтлан үзвэл уг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ж болох мэт.

Балжин-Кульжур гэдэг газрыг түүхэн үйл явдлаар нь баримжаалж Балжун нуур байж болох юм гэж таамагл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нэ түүхт газар Чингис хаанта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хэд хэдэн удаа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дурдагдсан байдаг. Тухайлбал Балжун нуурт байхад нь сартагтайн Асан хэмээх худалдаачин ирж худалдаалж байсанбаменсудрынчуулганддурдснаарЧингисхаанХалзанЭлээтийнтулалдаандялагдаадухрахадцэргийнолонхитүүнээссалжодсонажгуу. Чингис хаан Балжуна тийш одсон нь, тэр газар хэдэн жижиг булагтай хүн мал хүртэлцэхгүй байжухуй. Тиймээс тэд шавраас ус шавхан гаргаж ууж байжухуй. Тэр цагт Балжунад Чингис хаантай хамт байгсад цөөн бөгөөд тэднийг Балжунагийнхан гэж нэрлэдэг нь хаанаас урвалгүйгээр тэнд ирэгсэд гэсэн утгатай ажаам.гэсэнүйлявдлуудтайхолбондурдагддаг. БалжуннуурынуснаасуужандгайтангарагтавьжбайсанЧингисхааныүнэнчандуудандгайтангаргаасааурвалгүйэцсээхүртэлявжИхулсыгбайгуулсанбилээ. Тиймээстэднийэдлэхэрхдархбусаасдээгүүрбайсанбилээ.ХаринКульжургэдэгүгийнтухайдодоохондоотайлбарөгөхболомжгүйбайна.

“Их засаг”-ийн хуулийн заалтыг зөрчсөн хожмын алтан ургийнханд сануулга болгож, ухааран бодох боломж олгох зорилгоор зориуд энэхүү түүхэн газрыг сонгон явуулдаг байсан байж болох юм.

Мөн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Чингис хаан хэшигтэн цэргийг өргөтгө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даа “Хэшигтэн хүн хэшиг огоорвоос, тэр хэшиг огоорсон хэшигтнийг гурван бэрээ шүүтүгэй! Мөн хэшигтэн бас ахин хэшиг огоорвоос, 7 бэрээ шүүтүгэй! Бас мөн хүн бие хараа өвчин үгүй, хэшигийн ноёноос хэлгүй бас мөн хэшигт гурвантаа хэшиг огоорвоос, 37 бэрээ шүүтээд,бидэнтэй явахаа бэрхшээсэн ийм хүнийг эчнээ хол газар илгээе” хэмээн зарлиг болсон тухай, Чингис хаан “надтай зөвшилцөлгүйгээр миний хэшигтнийг бүү буруутгагтүн” гэж зарлиг болсон тухай өгүүлжээ. Дээр ду

рдсан мэдээнүүд нь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ед цөлөх ял байсан тухай мэдээ өгч байна.

Харин Хубилай хаан Юань улсыг байгуулсны дараа шинэ хаан сонгох буюу төрийн эргэлт хийх гэсэн оролдлого, бослого тэмцэл 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алтан ургийн язгууртнууд, хан хөвгүүд, хатад нутаг заагдан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тухай мэдээ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 – т цөөнгүй тэмдэглэгджээ.

Хубилай хаан монголын улс төрийн төвийг өмнө зүг нүүлгэж Хятадад төвлөн суух болсноор төрийн гол хэргийг Дайдуд шийдэх болов.

Хубилай хаанаас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 хүртэл нийт 108 жил монгол хаад Дайдуд төр тэтгэн суухад төрийн эсрэг гэмт хэрэг болон хилс хэргээр олон хүн цаазаар авагдаж, ял сонсч байжээ. Бид цаазаар авах болон бусад ялын тухай үл өгүүлэн өөрсдийн сонирхож байгаа асуудалтай холбогдох цөллөгийн тухай асуудлыг товч авч үзье.

Юань улсын үед гол төлөв хаан ширээний төлөөх тэмцлийн улсаас цаазаар авагдах буюу цөллөгөнд явж байсан бөгөөд гол цөллөгийн газар нь Хятадын Юнань, Гуанси, Дунань жоу, Гуулин улсын Дайчөн-до, Иньмүл-до, Корань-до, Йёым-до, Инбүн-до, Пайгрйөн-до, Оя-до, Йөнхын-до, Жовөл-до, Оань-до, Тамна зэрэг арлуудад цөлж байжээ. Ямар ялтныг нь Хятадад болон ямрыг нь Солонгосын арлуудад цөлж байсныг ялгаж үзэхэд төвөгтэй байна.

Юань улсын үед хаан ширээний төлөө тэмцэл гүнзгийрч хаадын амь насанд халдах ноцтой болсон учир цөлөх газар нь хүнд хэцүү, буцах боломжгүй түүний дээр зарим үед хойноос нь хүн явуулж алуулах тохиолд ч гарч байжээ. Хубилай хааны үед түүнийг эсэргүүцэн тэмцсэн Аригбөх, Наян нарыг дэмжиж тэмцсэн хүмүүсийн нэлээдийг Солонгос руу цөлсөн байж магадгүй байна. Хубилай

хааныг эсэргүүцсэн Ляодунгийн хязгаарт гарсан Наян, Хадаан нарын бослогыг Баян жанжин дарсан ба Хайдугийн цэргийн хүчин баруун талаас довтлоход Хубилай хаан, Гамала хан хөвүүн, Баян нарыг Хархорумд их цэргийг удирдуулж, түүний эсрэг хөдөлгөсөн. Мөн Гүрөгийн Чүн Нёл вангийн цэргийг ардаас нь илгээсэн байна. Тэдгээр цэргийн хүчин бослогыг дарж олзны этгээдүүдийг зүг бүрт хуваан олгож байсны дотор солонгосын оролцогсод хувь он огдож нутаг руугаа авч явсан байхыг үгүйсгэхгүй. Мөн доктор Пак Вонгилийн хүснэгт 1-ээс харахад ч дээрх бослогуудад оролцсон хан хөвгүүд, алтан ургийн гишүүд ч бас байгаа юм.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т дурдагдаж буй цөлөх ялын тухайт мэдээг нэгэн илтгэлийн дотор бүгдийг хамран оруулах боломжгүй учир доктор Пак Вонгилийн “Т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т дурдагдсан зарим хүмүүсийн намтрын мэдээг бусад сурвалжийн мэдээгээр нэмэн тодруулахыг оролдъя.

Пак Вонгил докторын хүснэгт 1-ний эхэнд дурдагдаж байгаа Аячийг “Юань улсын судар”-т Хубилай хааны зургадугаар хөвүүн Аячи их ван. Эх нь тодорхойгүй.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8 дахь хөвгүүн. Түүний эх нь Хүшин аймгийн Уругал ноёны охин Хушин жин гэжээ. Жи Юань-ий 24-р он 1287 онд урвасан ван Шидурьг дарахаар цэрэг тулалдаж ялсан. Жи Юань-ий 28 дугаар он буюу 1290 онд хаан түүнд алтан тамга соёрхов. Аячид олгох жил бүрийн цалин пүнлүү нь 50 лан мөнгө, 1000 хэлхээ Жун Тунгийн цаасан мөнгө, 1656 хэлхээ Жи Юань-ий цаасан мөнгө билээ. Жил бүрийн татвар нь 544 хэлхээ цаасан мөнгө. 1312 онд Буянт хаан түүнд Шао У, Гуанзи-гийн 13640 өрхийг соёрхсон тухай өгүүлжээ.

Мөн хүснэгтийн хоёрт дурдагдаж буй Ширэги нь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Мөнх хааны гуравдугаар хүү Ширэги, Баяужин нэртэй бага хатнаас төрсөн гэжээ.

Хубилай–Аригбөх нарын хаан ширээний тэмцэлд Хубилай ялж 1268 онд Ширэгийг Хэпин вангаар өргөмжилсөн. 1267 оноос эхлэн Умардыг түвшитгэх ван Номухан, Нин ван Хөхчү нарын удирдсан цэрэгт багтаж, Хайду ханы цэргээс сэргийлж Алтайн чинадад суусан. 1276 онд Хубилай хааны их цэрэг, Өмнөд Сүн улстай дайтаж байхад бослого гаргаж, тэднийг барьцаалж Хайду ханд хүргэж өгсөн. Гэтэл Хайду хан тэднийг авахаас татгалзаж, олзны хүмүүсээс Антуныг өөртөө авч, Хөхчү, Номухан нарыг Мөнхтөмөр ханд хүргэж өгчээ. 1276–1277 онд хонгирад аймгийн Зургаадай ноён хамтаар Хархорум хот, Инчан хотыг эзлээд, Инчан хот, Туул голд Баян ноён, Тутуха ноён нарын их цэрэгт ялагдаж Алтайн нур уу тийш зугтан оджээ. 1277–1280 он хүртэл өөр хоорондоо хаан ширээний төлөө байлдаж, эцэстээ Мөнх хааны ач хүү Сарбан нь Ёмухур, Ширэги нарыг барьж Хубилай хаанд бууж өгсө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Хубилай хаан Ширэгийг авч, түүнийг далайн эрэгрүү халуун газар явуулсан учир тэндээ үхсэн ажгуу гэжээ.

Мөн хүснэгтийн гуравдугаарт дурдагдаж буй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т дурдснаар Хөхдэйг их ван гэснээс алтан ургийн шууд удмын хүн болох нь тодорхой. Түүний цөлөгдсөн цаг үе болон байдлаас үзэхэд Наяны бослогод оролцсон, Чингис хааны дүү Зочи Хасар, Тэмүгэ–отчигин, Хачиун нарын зэрэг зүүн жигүүрийн ханы удмын хойчис бололтой. Цөлөгдсөн арал нь Дайчин–до гэжээ.

Түүнтэй нэр ойролцоо мөн Гуулин улсад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Хөхчүг түүнтэй харьцуулан үзэхэд амьдарч байсан цаг хугацаа зөрүүтэй учир нэг хүн гэж үзэх боломжгүй байгаа ба цөлөгдөж байсан хүний тоог нэгээр нэмж байна.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Хубилай хааны 9–р хөвүүн Нин ван Хөхчү (?–1313) Жи Юаний 26–р он буюу 1289 онд Хайду ханы их цэрэгтэй байлдсан тул Нин Юань ван (寧遠王) цол шагнаад Яст мэлхийн бариулт алтадмал мөнгөн тамга олгож, Монгол газарт бас цэрэг захируулан суулгасан. 1310 о

нд ялд унаж, Гуулин улс руу цөллөгт явсан. Тэрээр Аюурбарбад буянт хаанын үед цөллөгнөөс нь суллаад Дадү хот руу буцаасан ч ирэх замдаа нас нөгчсөн гэжээ. Энэ хүний тухайд цаашид нягтлан үз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хэмээн бодож байна.

Доктор Пак Вонгилийн хүснэгтийн 15-д дурдагдсан Юань улсын Инзун гэгээн хаан Содбал хааны үед 1324 оны 1 сараас 1329 оны 3 сар хүртэл Дайчин-до аралд цөлөгдсөн тайж Пай-жа буюу Бор бидний анхаарлыг татаж байгаа юм.

1311 оны үед Аюурбарвад Их Юань улсын хаан ширээнд өргөмжлөгдөөд тэрээр Байжу-г баруун гарын тэргүүлэгч сайдаар томилжээ.

Байжу ноён (1298–1323) нь Жалайр аймгийн Мухулай ноёны удмын Антун ноёны ач хүү бөгөөд Юань улсын Буянт хаан, Гэгээн хааны төрд хүчин зүтгэж байсан монгол төрийн шударга сайд байжээ.

1320 онд Содбал хаан ширээнд суугаад Байжу-г үргэлжлүүлэн ажилуулсан эсэх нь тодорхойгүй ч хожм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аас нь харахад ажилла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1323 оны 9 сарын 4-нд Содбал гэгээн хаан, Байжу чинсангийн хамт нийслэл Дайдугаас гарч Шандү орох замд Морины өвчүү (Наньпу) гэдэг газар буухад Тэгш, Чинтөмөр нар цэрэг дагуулан ирж 20 настай Содбал хаан, Байжу чинсан нарыг хороожээ.” гэсэн байдаг. Гэтэл хүснэгтэд дурдагдсан Пай-жа 1324 оны 1 сараас Дайчөн-до аралд цөлөгдөж 5 жил болсон гэсэн мэдээ нь сонирхолтой бөгөөд цаашид нягтлаж үзүүштэй санагдлаа.

Хүснэгтийн 16-д дурдагдаж буй Тогоонтөмөрийн тухай авч үзье. 1332 онд Тугтөмөр хаан Шандү хотод нас нөгчив. Баруун гарын тэргүүлэгч сайд Элтөмөр Раднаадарийн дүү Элтөгсөөр их суурийг залгамжлуулахаар өргөн мэдүүлсэн байна. Элтөгс нь Будашир (Бодышир) хатны төрсөн хөвгүүн юм. Будашир хатан ихэд болгоо

мжлон тэргүүлэгч сайд Элтөмөрийн айлтгалыг дагалгүй өгүүлсэн нь: “Урьдах хааны гэрээс зарлигт намайг тэнгэрт одсоны дараа их ах хутагт хааны хөвгүүнээр их орыг залгамжлуул” хэмээжээ. Тухайн үед Хүслэн хааны ахмад хөвгүүн Тогоонтөмөр зэрэг цол, эрхээ хасуулж, Жьин жьиан-гийн газарт цөллөгт яваад байжээ. Хоёр дугаар хөвгүүн Фү ван Ринчинбал дөнгөж долоон нас хүрч байв. Гэтэл Будашир хатан энэхүү завшааныг ашиглан Фү ван Ринчинбалыг их сууринд өргөмжлөөд төрийн эрхийг өөрөө атгах болжээ.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 эрийн цээнд хүрээд эцэг Хүслэн хааныг хорлогдож үхсэнийг мэдээд туйлын ихээр харуусан гашууджээ. Ингээд 1340 онд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 жуу бичиг буулгаж эцэг Хүсэлэ хааныг хороож алсан гол буруутан Тугтөмөр хааны сүмийн шүтээний суурийг гарган хаяж, улмаар Будашир хатныг Дун ань жоу-д цөлөн явуулж, удалгүй Будашир хатан, хун тайж Элтөгс нарыг хорлон алжээ хэмээн тэмдэглэжээ.

Харин Юань улсын сүүлч үеэс Мин улсын эхэн үед Чигуан Хэний бичсэн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ы цадиг”-т 1330 онд Тугтөмөр хааны зарлигаар Тогоонтөмөрийг Корё улсын Да чин аралд нутаг заан суулгаж, гаднах хүмүүстэй уулзахыг цаазлан хориглов. 1332 онд Гуань сы-гийн Жьин жьиан чөлгөөд шилжүүлэн суулгасан гэжээ.

Дээр дурдсныг нэгтгэн дүгнэвэл:

Чингис хааны үед цөлөх ял нь сургамжлан ойлгуулах хандлага нь илүүтэй байсан бол Юань улсын үе болоход нэлээд чанга цаазын нэг болон хувирчээ. Төрийн эргэлт, хаан ширээ залгамжлуулах эгзэгтэй мөчид хуйвалда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садыг хатуу чанадаар цээрлүүлж цаазаар авч байсан ба түүний дараах ял нь нутаг заан цөл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Цөлөх нь тодорхой хугацаатай зарим нь бүх насаар нь явуулж байв. Энэхүү ялд хааны их хатад, хан хөвүүд цөөнгүй тоогоор хамрагдсан нь тухайн үеийн улс төрийн байдал

нэлээд тогтворгүй түгшүүртэй, ноцтой байсныг илтгэж байна.

Цөллөгөт олон тооны язгууртан түшмэл, алтан ургийн ноёд, түүний дотор их хатад цөөнгүй байсан нь олон хан хөвгүүдийн дундаас өөрсдийн хүүг хаан ширээ залгамжлуулахаар өрсөлдөж хуйвалдаан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буюу оролцдог байсантай холбоотой байна.

Энэ асуудлыг гүнзгийрүүлэн судлах нь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тодорхойгүй олон зүйлийг тодруулахад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Abstract

The Mogolian Nobels Exils from Yuan Dynasty to Goryeo

Sodnom Tsolmon*

From the standpoint of Mongolia, Tamna(Jejudo Island) was a bridge that China culture was introduced to Japan via Goryeo and wa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sea port through the sea route. At that time, Mongolia described Jeju Island as a separate island and named Tamna as a country(ulus). This indicates that Tamna was more independent than any other island. In Yuan Dynasty, the death penalty was imposed or exile due to the struggle of the royal throne. Its main places of exile were China's Yunnan Province, Kwangseong, and Goryeo's islands and Tamna. The exile in Genghis Khan was dominant in giving lessons to teach.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most strict punishments has changed in Yuan Dynasty. Among Exiles, there were numerous officials, the nobles of the golden families, and the empress.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he tried to crown his son king as king among the princes.

Keywords : Mongolia, Yuan, Goryeo, Tamna, Exiles

* Ulaanbaatar State University, Mongolia

濟州島研究 48집

교신: Tsolmon.S P.O.Box 339 Ulaanbaatar-46 Mongolia

(E-Mail: tsolmon.sodnom@yahoo.com)